

#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의 비교고찰\*

-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한일유행가를 중심으로 -

金姬廷\*\*

heejungk@korea.ac.kr

## 〈要旨〉

本稿は1945年から1960年までの韓日の流行歌に表れる國名・地名の比較考察を通じて兩國の語彙に反映された當時の時代的な特性と相互の關連性を察してみた。

韓日兩國の流行歌に表れる國名・地名を表わす語彙の比率は日本が韓國より高かった。また、國內の地名と國外の國名及び地名で分けてみると、日本の場合は「國內(78%)>國外(22%)」で、韓國の場合は「國內(74%)>國外(26%)」で、兩國全部、國內の地名の比率が高かった。日本の流行歌に表われる國內外の地名・國名の中で頻繁に登場している語彙は「東京、長崎、銀座、大阪、高原、京都、チャイナタウン、沖縄、浅草、有楽町、尾瀬、伊豆、西銀座駅前、ミネソタ、木浦、上海、アルプス、ハワイ、日本、ハバロフスク、オランダ、モロッコ」であった。韓國の流行歌に表われる國內外の地名・國名の中で頻繁に登場している語彙は「서울、나포리、경상도、과리잔느、목포、남원、부산、아라비아、베니스、차이나타운、전라도、추풍령、호남선、충청도、제주、이북、韓國、경부선、미아리」であった。

韓日の兩國の流行歌に共通的に表れている國內外の地名では「チャイナタウン(차이나타운)、木浦(목포)」があった。特に、「木浦(목포)」は日帝強占の時、日帝の軍需物資、食量と労働力の流出が頻繁にあった空間的な地表で兩國が認識していることがこの調査を通じて分かった。また、前後の復舊と光復という時代的な状況の中で兩國の首都である「도쿄(東京)、서울」に産業と人口の集中化の現状が高かったことが分かった。

このように韓日の流行歌の國名・地名を表している語彙は當時の兩國の政治的、社會的な變動による當時の時代相を反映する鏡のような役割を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今後は本考察を基にして1960年代の以後の韓日の流行歌に表れている國名・地名の比較考察を通じて各時代の變化様相がどのように反映されているかを考察したい。

主題語: 유행가(a popular song), 지명(a geographical designation), 국명(the name of a country), 서울(Seoul), 동경(Tokyo), 대조(comparison)

##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한일 양국 유행가에 등장하는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의 고찰을 통하여 양국 어휘에 반영된 당시의 시대적 특성 및 상호 관련성을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명(地名)<sup>1)</sup>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명칭<sup>2)</sup>, 토지를 부르는 이름<sup>3)</sup>, 마을이나 지방, 산천,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2-A00019)

\*\*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원 연구교수, 일본어학.

1) 지명은 두 사람 이상의 인간에게 공유된 장소를 구별하기 위한 고유명사로 이러한 지명을 통해 당시의 사고(思考), 의식 구조, 전통과 습관, 문화와 경제 등을 알 수 있다. 근년에는 지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외국에서는 지명학(地名學)이 지리학의 새 분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한국은 오랜 사회적 불안

지역 따위의 위치나 이름<sup>4)</sup> 등 북위 몇도, 동경 몇도 등의 GPS레벨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지명 그 자체가 역사의 축적물로서 독자적인 변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명은 무형문화재인 동시에 일용품적인 측면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동경, 뉴욕」과 같은 브랜드성을 갖는 지명은 계속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지명은 축소, 소멸되기도 한다는 것이다<sup>5)</sup>.

즉, 지명이란 생명력을 갖는 유기체이면서 무형문화재로서 과거와 현재를 비취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유행가란 가장 대중적인 장르 속에 자주 등장하는 특정지명이야말로 당시의 시대적 면모와 변동을 가장 상징적, 집약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명·지명이라는 특정 이미지를 갖는 지역성을 정점으로 고찰함으로써 보다 실증적인 어휘의 비교고찰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행가에서 다수의 특정지명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금번 1945년 이후의 한일 유행가에 등장하는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 고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행가의 어휘 연구에 있어서 국명·지명을 이용한 고찰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명이 일반 대중들에게 공통적으로 연상시키는 일관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기는 일본의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 직후인 1945년부터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되기 직전인 1960년까지로 한정하기로 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 유행가에 나타난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를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대상은 한일 양국의 1945년부터 1960년까지 각 시대에 널리 인기가 있어서 당시 대중들의 공통 정서가 반영된 유행가<sup>6)</sup>로 한국과 일본의 유행가 전체곡수와 어휘의 전체양

과, 전통 유지에 등한했던 관계로 지명을 붙이게 된 계기나 시기 등이 후대에 전해지지 않는 것도 많고 변한 것도 많다고 한다.

2) 『広辞苑』(1983) 第三版, 岩波書店

3) 『新明解國語辭典』(2000) 第五版, 三省堂

4)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출판사

5) 今尾恵介(2008) 『地名の社會學』角川選書424, p.257

6) 본고에서는 음반으로 생산되어 상업성을 띤 성인 대상의 노래인 유행가로 한정하기로 한다. 판소리,

상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한일 유행가의 곡수와 어휘량

	시기	곡수	총출현어수	별개어수
일본	1945-1960	293	13905	2957
한국	1945-1960	231	12714	2317

일본 자료로는 『新版 日本流行歌史 中, 下』(社會思想社, 1997) 중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총 293곡을, 한국 자료로는 최근 한국 고음반 연구회에서 영인 작업을 거쳐 출간된 『유성기로 듣던 不滅의 명가수(1945-1960)』(신나라레코드사, 1996) 중 231곡을 택했다. 이 곡들은 양국의 가요사 전반을 포괄하고 있고 수록 작품들의 발표 연도와 작사자, 작곡자, 가수를 명기하고 있기에 연구 대상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 유행가에 자주 등장하는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휘의 계량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 단위로 삼은 기준은 「단어 단위」로, 단어가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어라고 하면 ‘花’, ‘淚’, ‘사랑’, ‘당신’ 등 단일어뿐만 아니라 ‘お元気’, ‘下駄足駄’, ‘寒寒’, ‘うちそと’, ‘打ち明ける’, ‘꼬리치다’, ‘입신양명’ 등 복합어와 파생어 등도 있기 때문에 단어 그 자체는 유행가 어휘 조사의 단위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8종류의 어휘 조사를 통해 각 자료에 알맞은 조사 단위를 세운 바 있다. 국립국어 연구소에서 사용한 조사 단위는 장단위계의 5종(어절 단위, α단위, W단위, 장단위<sub>1</sub>, 장단위<sub>2</sub>)과 단단위계 3종(β단위, 단단위, M단위) 등 모두 8종이다. 장단위계의 조사 단위는 문절(文節)<sup>8)</sup>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단위이며, 단단위계 단위는 단어를 형성하고 있는 형태소를 조사하는 단위이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유행가 어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장단위계의 단위를 설정하고 부분적으로 단단위계 단위도 병행하였다.

민요, 잡가, 시조 등의 구비 전승되는 구전가요와 음반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만들어진 민중가요는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구전가요는 활자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사나 발행연도를 알 수 없고, 특정집단에서 즐겨 부른 동요나 가곡 등은 대중의 인기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7) 이한섭(1997), 「어휘 조사 단위에 대한 연구 - 일본 국립 국어 연구소의 각종 어휘 조사 단위를 중심으로 -」, 『국립국어연구원』의 단위 설정 기준에 입각하여 조사단위를 추출하였다.

8) 문절(文節)은 우리말의 어절에 해당한다.

### 3.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

한일 양국 유행가의 어휘 중 국명·지명의 용례와 전체 총 출현어수에 대한 사용률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sup>9)</sup>.

<표2>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

국명·지명	일본(%)	한국(%)
국내	1.30	1.00
국외	0.30	0.20
합계	1.60	1.20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의 비율이 일본은 1.60%, 한국은 1.20%로 한국보다 일본이 0.40% 가량 높다.

이를 국내의 지명과·국외의 국명 및 지명으로 나누어 「국내·국외」로 살펴보면 일본은 「국내(78%)>국외(22%)」이고, 한국은 「국내(74%)>국외(26%)」의 순이다. 일본의 국내의 지명의 비율이 4% 가량 높지만, 양국 모두 국내의 지명을 나타내는 어휘의 비율이 국외의 국명 및 지명을 나타내는 어휘의 비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국내외의 지명 및 국명의 용례를 통해 당시 양국이 처한 나름의 정치적, 사회적인 변동양상과 함께 대중의 정서가 유행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한국의 경우

한국 유행가에 나타난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어휘의 총출현어수 중에서 약 1.2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국내의 국명·지명의 총출현어휘수와 별개어휘수가 모두 국외의 지명을 나타내는 어휘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 기간 내의 일본 유행가에 나타나는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와 공통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의 패전국으로 그 결과 광복을 맞이한 한국 모두

9)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의 도수 산출방법은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의 빈도수/어휘의 전체 총 출현어수(소수점 세 자리 이하 버림)X100으로 함

정치적인 변동 속에서 외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해야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유행가에 등장하는 국명·지명 중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은 「서울, 나포리, 경상도, 파리잔느<sup>10)</sup>, 목포, 남원, 부산, 아라비아, 베니스, 전라도, 추풍령, 호남선, 충청도, 제주, 이북, 한국, 경부선, 미아리」 등이다.

광복 이후 유행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명은 일제강점기에 이어서 여전히 「서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구조적인 수도 집중화 개발로 인해 서울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강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광복이후 서울수복에 따른 서울에 대한 감회와 정서가 새로워진데다 일본의 감시를 벗어나 자유롭게 수도 서울에 대한 예찬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행가 속의 「서울」은 실제의 서울 그 자체라기보다는 풍요와 행복이란 대중적 욕망의 상징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서울 이외의 국내의 지명 중 「목포, 여수, 전라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던 「부산, 경부선<sup>11)</sup>, 경상도」 등 여러 지역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라도, 목포, 남원, 김제, 여수」 등 전라도의 지명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농(離農)을 하여 큰 도시로의 이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영남지역은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공장이 들어서는 등 주변의 농업인구를 흡수하였지만 호남지역은 여전히 농업지역으로 남아있었기에 사람들은 가난한 농촌을 떠나 서울로 상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음을 유행가를 통하여 알 수 있다.<sup>12)</sup>

다음의 <예문1>은 수도 서울을 「태양, 청춘, 명랑, 럭키서울」 등으로 밝고 역동적으로 예찬하고 있다. 표기조차 「SEOUL SEOUL 럭키 서울」 등 영어의 직접적인 사용으로 근대화 된 서울에 대한 미화를 통해 막연한 동경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1>

1. 서울의 거리는 태양의 거리 태양의 거리에는 희망이 속네 타이프 소리로 해가 저무는 빌딩가에서는 웃음이 솟네<sup>13)</sup> 너도 나도 부르자 희망의 노래 다 같이 부르자 서울의 노래 SEOUL SEOUL 럭키 서울

10) 원문표기에 준해서 각 용례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11) 한국의 철도의 개통은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을 필두로 1905년 경부선, 1906년 경의선, 1914년 호남선, 1926년 함경선이 개통되어 남북과 동서를 횡단하게 된다.

12) 한국역사연구회(1998), 『우리들은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역사비평사, pp.106-107.

13) 원문표기에 준해서 각 용례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2. 서울의 거리는 청춘의 거리 청춘의 거리에는 건설이 있네 역마차 소리도 흥겨워라 시민의 합창곡이 우렁차구나 너도나도 부르자 건설의 노래 다 같이 부르자 서울의 노래 SEOUL SEOUL 럭키 서울
3. 서울의 거리는 명랑한 거리 명랑한 거리에는 행운이 오네 비둘기 날으는 지붕에는 오색빛 무지개가 아름답구나 너도나도 부르자 서울의 노래 다 같이 부르자 서울의 노래 SEOUL SEOUL 럭키 서울(럭키서울, 1948,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 노래)

다음의 <예문2>은 「경상도, 부산,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 등의 다양한 한국의 국내 지명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해방이후 생계를 위한 농촌에서 도시로의 물적교류 및 인적왕래가 교통의 발달로 한층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문2>

1. 경상도라 고개 넘어 산수 좋은 강원도 수수주잔을 들고 강원도 타령에 수줍던 아가씨 옷소매 잡고 다시는 경상도로 못 가게 하네
2. 섬진강을 건너가면 인심 좋은 전라도 찹쌀주 걸러놓고 전라도 타령에 말없던 아가씨가 뒤따라서며 영원히 전라도에 살자고 하네
3. 부산 현해파도 넘어 말도 다른 제주도 감자주 한잔 위에 제주도 타령에 검푸른 비바리가 마지막 부탁한 세상 제주도에 늙자고 하네(경상도 사나이, 1950, 월견초 작사, 한복남 작곡, 문일봉 노래)

이 밖에도 <예문3>의 「이북」을 통해 당시의 38선을 경계로 남북분단의 서러움과 두근거린 가족과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

<예문3>

1. 사십계단 층층대에 앉아우는 나그네 울지말고 속 시원히 말좀 하세요 피난살이 처량스레 동정하는 판자집에 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러워 묻는구나 그래도 대답없이 슬피우는 이북고향 언제가려나
2. 고향길이 틀 때까지 국제시장거리에 담배장수 하더라도 살아보세요 정이 들면 부산 향도 내가 살던 정든 산천 경상도 아가씨가 두 손목을 잡는구나 그래도 눈물만이 흘러젖는 이북고향 언제가려나
3. 영도다리 난간위에 조각달이 뜨거던 안타까운 고향애기 들려주세요 복사꽃이 피던 날 밤 옷소매를 끌어잡는 경상도 아가씨의 그 순정이 그림구나 그래도 뼈에 맺힌 내

고향 이북고향 언제 가려나(경상도 아가씨,1953, 손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 남백송 노래)

유행가에 등장하는 국외의 지명과 국명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에 등장했던 「중국, 일본, 이태리, 소련」 외에 「나폴리, 파리잔느, 아라비아, 베니스, 차이나거리, 페르샤, 홍콩, 아메리카, 워싱턴, 서반야, 나일강변, 알젠진, 아링톤, 싱가포르, 뷔엔나」 등 다양한 외국국명과 지명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쟁 이후의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외래문물의 본격적인 유입으로 인해 한국의 내부적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외의 다양한 지명이 쓰인 곡들의 가사를 살펴보면 이국취향과 영어과시적인 표현의 산물로 이질적인 종족과 급격한 문화적 충격이 잘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시대에 일본의 중계로 서양문물이 유입되었지만 서양문화에 대한 경계심으로 소극적인 수용양상을 「인도의 향불」, 「럭키모닝」, 「럭키서울」, 「청춘 아베크」,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등에 등장하는 무의미한 영어과시적 어휘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해방무렵부터 급변하는 정치적, 사회적 변동 속에서 수반되는 서구문물의 유입이 문화의 부조화 현상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sup>14)</sup>.

국외적으로 전기의 「중국, 일본, 이태리, 소련」 외에 「아메리카, 아라비아, 홍콩, 싱가포르, 서반야」 등 폭넓은 외국국명과 지명이 등장한다. 이는 일제강점으로 인해 단절된 국외교류가 광복 이후 본격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양열강과의 물적, 인적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니스, 아메리카」 등의 외국지명과 「플랫홈, 로 맨스」 등의 외래어를 통해 이별의 슬픔을 이국적인 정서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4>

1. 로맨스의 불도 꺼진 애달픈 사랑 베니스를 떠나가는 가슴만 아파 그대 눈과 내 눈동자 서로 본 죄나 내마음 그대 마음 부디친 죄나
2. 시름없이 차창 밖을 내다보면은 비에 젖은 그 여인은 말도 없는데 베니스의 황혼 길은 플랫홈엔 울면서 헤어지는 사람 뿐이요
3. 헤어지고 만나게 로맨스드냐 베니스의 하늘에는 별빛이 준다 떠나가는 아메리카 내 고향 길엔 여수에 얼룩젖은 실비가 온다(이태리정거장, 1950, 손로원 작사, 박춘석 작곡, 현인 노래)

14) 이영미(2002) 『홍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황금가지, pp.84-86

다음의 <예문5>는 「나포리, 베니스, 싱가포르」 등 외국지명을 통한 이국적 정서와 함께 「비행기, 세계일주, 다이아보석반지」 등 현실에서 쉽게 이를 수 없는 일들을 열거하여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부탁하고 있다.

<예문5>

1. 세상을 다 준대도 속지를 마세요 수줍은 내 순정을 다 꺾어 놓고 하룻밤 풋맹세에 밭길로 파는 이것이 밤거리의 자랑인가요 사나이 영터리드라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를 마세요
2. 달콤했던 연애편지 속지를 마세요 당신이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달없는 사막에다 불꺼진 항구 그날이 가기전에 토라지더라 토라지더라 사나이 영터리드라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를 마세요
3. 다이아 보석반지 속지를 마세요 나포리 베니스에 싱가폴 항구 비행기 세계일주 문제 없으니 결혼식 행진곡에 변해지더라 사나이 영터리드라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를 마세요(속지를 마세요, 1950, 야인초 작사, 박시춘 작곡, 백설희 노래)

한국의 유행가에 나타난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전체별, 국내외별 빈도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지명·국명을 나타내는 어휘>

- ◇ 전체지명·국명:서울>나포리>경상도>파리잔느>목포>남원=부산>아라비아=베니스=전라도>추풍령=호남선=충청도=제주>이북=한국=경부선=미아리>대전=여수=차이나거리=송도=페르샤=홍콩=아메리카=월미도=황해도=하동포구=강원도=인천항=워싱턴=이화>명동거리=서반아=우이동=울릉도=작약도=김제=나일강변=알젠틴=아링톤=싱가폴=대관령=뷔엔나
- ◇ 국내지명:서울>경상도>목포>남원=부산>전라도>추풍령=호남선=충청도=제주>이북=한국=경부선=미아리>대전=여수=차이나거리=송도=월미도=황해도=하동포구=강원도=인천항=이화>명동거리=우이동=울릉도=작약도=김제=대관령
- ◇ 국외지명:나포리>파리잔느>아라비아=베니스=차이나거리=페르샤=홍콩=아메리카=워싱턴=서반아=나일강변=알젠틴=아링톤=싱가폴=뷔엔나



### 3.2 일본의 경우

일본유행가에 나타난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어휘의 총출현어수 중 1.6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의 지명을 나타내는 어휘의 총출현어수와 별개어수가 모두 국외의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의 지명이 국외의 국명·지명보다 일반 대중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어서 감정 전달의 용이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의 국명 및 지명은 일반적으로 어떤 감정이 특별하게 전달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명 및 지명만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국내를 나타내는 어휘보다 그 출현빈도가 낮은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주지의 사실로, 전시대의 일본은 탈아론, 동북아공영론 등 일본은 아시아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를 지향하였고 청일전쟁(1894)을 필두로 러일전쟁(1904), 제1차 세계대전<sup>15)</sup>(1914) 그리고 중일 전쟁(1937), 다시 태평양전쟁<sup>16)</sup>(1941) 등 세계 각지의 전쟁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국가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전쟁의 승리에 있게 되면서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국외로의 관심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이후 미국의 정치 간섭 및 내부로의 개혁 등 정치적, 사회적 변동 속에서 초도화된 국내로 관심이 이동되었음을 국내지명의 증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행가에 나타난 국명 및 지명은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당시의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는데 실증적, 객관적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 유행가에 등장하는 국명·지명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은 「東京, 長崎, 銀座, 大阪, 高原, 京都, チャイナタウン, 沖繩, 浅草, 有楽町, 尾瀬, 伊豆, 西銀座駅前, ミネソタ, 木浦, 上海, アルプス, ハワイ, 日本, ハバロフスク, オランダ, モロッコ」 등이 있다.

일본의 국내외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 중에서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지명은 수도인 「도쿄(東京)」이다. 이는 1956년부터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도쿄(東京) 등 대도시의 빌딩과 공장이 세워지는 등 재근대화 및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유행가는 근대화한 도시로 향한 막연한 동경이 전제가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책속에서 노동력의 부족으로 도시로 특히 도쿄(東京)로 노동력의 집중현상이 이 무렵을 전후해서 심화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이 결부된 노래가 다작되어 유행하였다.<sup>17)</sup>

『東京の人』(1956), 『別れの一本杉』(1955), 『東京の人よさようなら』(1956), 『リンゴ

15) 이 당시 일본은 연합군으로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독일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16) 주로 미국, 영국 연합군을 상대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났다.  
 17) 柴田勝章(1996) 『歌のなかの東京』、中央アート出版者、pp.64-65, 矢沢 寛(1994) 『流行歌氣まぐれ50年史』、大月書店、pp.83-84

村から』(1956), 『早く帰ってヨ』(1956), 『哀愁列車』(1956), 『東京見物』(1957), 『東京だよお母さん』(1957), 『東京午前三時』(1957), 『東京のバスガール』(1957), 『有樂町で逢いましょう』(1958) 등 도쿄(東京)붐이라고 할 정도로 도쿄(東京)이라고 하면 무언가가 있다는 구인력 때문인지 「도쿄(東京)」을 소재로 한 곡이 가장 많았다.

다음의 <예문6>은 일본의 수도 도쿄(東京)에 대한 미화를 통해 무한한 동경을 표출하고 있다. 동경내의 유명한 도시 중에서 히비야(日比谷)는 사랑의 명소로, 우에노(上野)는 꽃의 명소로, 아사쿠사(浅草)는 꿈의 천국과 영화의 명소로, 긴자(銀座)와 신주쿠(新宿)는 밤 풍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도쿄(東京)에 대한 예찬을 극대화하고 있다.

<예문6>

1. 도쿄의屋根の下に住む 若い僕等は しあわせもの 日比谷は 恋のプロムナード 上野は花アベック なんにもなくてもよい 口笛吹いて ゆこうよ 希望の街 憧れの都 二人の夢の 東京
2. 도쿄의屋根の下に住む 若い僕等は しあわせもの 銀座は 宵のセレナーデ 新宿は 夜のタンゴ なんにもなくてもよい 青い月の 光に ギターをひき 甘い恋の唄 二人の夢の 東京
3. 도쿄의屋根の下に住む 若い僕等は しあわせもの 浅草 夢のパラダイ스 映画にレビューに ブギブギ なつかし 江戸の名残り 神田に 日本橋 キャピタル東京 世界の憧れ 楽しい 夢의 東京(東京の屋根の下, 1948, 佐伯孝夫 작사, 腹部良一 작곡, 灰田勝彦 노래)

<예문7>은 「ドレス, 나이트클럽, 사키존, 아스팔트, 캐딜락, 테일, 램프」 등의 외래어를 통해 최신문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도쿄(東京)의 새벽풍경으로 이 모든 것은 님과 마찬가지로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문7>

1. 真っ紅な ドレスがよく似合う あの娘 想て むせぶのか ナイトクラブの 青い 灯に 甘く やさしい サキ존 ああ 도쿄의 夜の名残りの 午前三時よ
2. 可愛い 顔して 街角の 白い 夜霧に 濡れながら 待って いそうな 気もするが あの 娘 気ままな 流れ星 ああ 도쿄 恋의 名残りの 午前三時よ
3. おもかげ まぶたに 裏路へ 出れば 冷たい ア스팔트 似た 娘 乗せゆく キャ딜락 테일 램프가 だけ 赤い ああ 도쿄의 夜の名残りの 午前三時よ(東京午前

三時, 1957, 佐伯孝夫 작사, 吉田 正 작곡, フランク永井 노래)

또, 도쿄(東京)에 이어 「나가사키(長崎)」가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당시 나가사키(長崎)의 원폭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인한 극에 달한 절망이 「나가사키(長崎)」란 지명만으로 충분히 대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1955년에 군사기지 반대 운동이 일어나면서 원폭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原爆許すまじ(1954)<sup>18)</sup>』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되어 유행하였기 때문에 「나가사키(長崎)」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다음의 <예문8>은 나가사키(長崎)의 항구에서 님과의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입에게 바친 순결은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는 등 애절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예문8>

1. 波が歌うよ 長崎の港めぐれば 石だたみ 愛の灯ともす 希望の家に サンタマ리아の鐘が鳴る
2. 君に捧げた 純潔は 永遠に 散らさぬ 白い薔薇 乙女心は 青(ブルー)の海に 夢を浮かべて すすり泣く
3. 親が なければ 孤児の歌もかなしや片羽鳥 顔で笑って 心で泣いて 行くぞ 嵐が 俺を待つ
4. 昨日 降ったは 小糠雨 今日 涙の雨が降る 夢の長崎 相寄る 魂を 結べ 夜霧の アベマ리아(長崎エレジー, 1947, 島田馨也 작사, 大久保徳二郎 작곡, ディック・ミネ 노래)

다음의 <예문9>는 사랑하는 부인을 잃은 슬픔을 「野の花」를 비롯하여 천주교의 종교적 소재 「ロザリオ, ミサ, 十字架, マリア様, 長崎の鐘」를 통해 위안을 얻고자하는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

18) 原爆許すまじ(1954), 浅田石二 작사, 木下船二 작곡, 가수미상)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 ふるさとの街やかれ 身よりの骨うめし 焼土に今は 白い花咲く ああ 許すまじ原爆を 三度 許すまじ 原爆を われらの街に  
 2. ふるさとの海荒れて 黒き雨喜びの日は なく 今は 船に人もなし ああ 許すまじ 原爆を 三度 許すまじ 原爆を われらの海に  
 3. ふるさとの空青く 黒き雲 今日 大地おおい 今は 空に陽もささず ああ 許すまじ 原爆を 三度 許すまじ 原爆を われらの空に  
 4. はらからの絶え間なき 労働に築きあぐ 富と幸 今は すべてついで去らん ああ 許すまじ 原爆を 三度 許すまじ 原爆を 世界の上

<예문9>

1. こよなく晴れた 青空を 悲しと思う せつなさよ うねりの波の 人の世にはかなく生  
きる 野の花よ ながさめ はげまし 長崎の ああ 長崎の鐘が 鳴る
2. 召されて妻は 天国へ 別れてひとり 旅立ちぬ かたみに 残る 로ザリオ의 鎖に 白き  
わが涙 ながさめ はげまし 長崎의 ああ 長崎의 鐘가 鳴る
3. つぶやく雨의 미사의 声 たたえる風의 神의 歌 かがやく 胸의 十字架に ほほえむ 海의  
雲の色 ながさめ はげまし 長崎의 ああ 長崎의 鐘가 鳴る
4. こころの罪を うちあけて 更けゆく 夜の月 澄みぬ 貧しき 家の 柱にも 気高く白き  
マリア様 ながさめはげまし 長崎의 ああ 長崎의 鐘가 鳴る(長崎の鐘, 1949, 사투어  
치로어 작사, 古関裕而 작곡, 藤山一郎 노래)

유행가에 등장하는 국외의 지명과 국명을 나타내는 어휘를 살펴보면 전시대에는 중국영역의 지명이 많았던 데에 반해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上海, 차이나타운」을 제외하면 중국 영역의 지명은 찾아 볼 수 없다. 그 대신에 유럽권의 「알프스, 노바로프스크, 오ランダ, 모로코, 몬테네그로, 프랑스, 러시아, 시베리아, 바이칼, 도나우, 불가리아」등과 미국영역의 「미네소타, 하와이, 아메리카」 등의 증가를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10>은 1954년에 있었던 알제리전쟁을 소재로 한 유행가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비참한 시대상을 「알제리아, 튀니스, 모로코」 등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예문10>

1. 涙じゃないのよ 浮気な 雨に ちょっぴり この 頬  
濡らしただけ ここは 地の 果て アルジェリア  
どうせ 카스바<sup>19)</sup>의 夜に 咲く 酒場의 女의 うす情け
2. 唄ってあげましょ わたしで よけりゃ 세ーヌ의 花が  
臉の都 花は 마로니에 샴페리제 赤い風車  
踊り子の 今さら かせらぬ 身の上を
3. あなたも 私も 買われた 命 恋して みたとして  
一夜の 火花 明日は チュニスか モロッコか 泣いて  
手をふる うしろ影 (카스바의 女, 1955, 大高ひさお 작사, 久我山明 작곡, 엠티노 노래)

19) 아프리카 북부의 아랍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술잔이 있는 성 또는 건물. 나아가 그 주변 주거 지역까지도 이른다. 아랍 어로는 본래 ‘성새(城塞)’를 뜻하며 알제리의 수도 알제의 것이 특히 유명하다고 한다.

일본의 유행가에 나타난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전체별, 국내외별 빈도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지명·국명을 나타내는 어휘>

◇전체지명·국명:東京>長崎>銀座>大阪>高原>京都>チャイナタウン>沖縄>浅草=有楽町  
=尾瀬=伊豆=西銀座駅前=ミネソタ=木浦=上海=アルプス=ハワイ=日本  
=ハバロフスク=オランダ>モロッコ>モンテンルぱ=スペイン=フラン  
스=シベリヤ=新宿=日比谷>隅田=浜松=箱根=池袋=下田=下座=沼津=  
名古屋=江戸=アメリカ=島田=高知=南国土佐=瀬戸=バイカル=ドナウ=  
アルジェリア=ラバウル=ロシア=ブルガリア=ホノルル

◇국내지명:東京>長崎>銀座>大阪>高原>京都>チャイナタウン>沖縄>浅草=有楽町=尾瀬=  
伊豆=西銀座駅前=日本=新宿=日比谷>隅田=浜松=箱根=池袋=下田=下座=沼津=  
名古屋=江戸=島田=高知=瀬戸

◇국외지명: ミネソタ=木浦=上海=アルプス=ハワイ=ハバロフスク=オランダ>モロッコ>モ  
ンテンルぱ=スペイン=フランス=シベリヤ=アメリカ=南国土佐=バイカル=ドナ  
ウ=アルジェリア=ラバウル=ロシア=ブルガリア=ホノルル

### 4. 결론

지금까지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한일 양국 유행가에 등장하는 국명·지명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양국 어휘에 반영된 당시의 시대적 특성과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한일 양국의 유행가에 나타나는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의 비율은 일본이 한국보다 높았다. 또한 이를 국내의 지명과·국외의 국명 및 지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일본은 「국내(78%)>국외(22%)」이고, 한국은 「국내(74%)>국외(26%)」의 순으로 양국 모두 국내의 지명을 나타내는 어휘의 비율이 국외의 국명 및 지명을 나타내는 어휘의 비율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특징은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과 그로 인해 광복을 맞이한 한국은 모두 정치적인 변동 속에서 외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해야 했기 때문으로 이러한 시대적 정서와 요구가 유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유행가에 자주 등장하는 국내의 지명·국명들은 「서울, 나포리, 경상도, 파리잔느,

목포, 남원, 부산, 아라비아, 베니스, 차이나타운, 전라도, 추풍령, 호남선, 충청도, 제주, 이북, 한국, 경부선, 미아리」 등으로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지명은 수도인 「서울」이다.

일본 유행가에 자주 등장하는 국내외 지명·국명들은 「東京, 長崎, 銀座, 大阪, 高原, 京都, チャイナタウン, 沖繩, 淺草, 有楽町, 尾瀬, 伊豆, 西銀座駅前, ミネソタ, 木浦, 上海, アルプス, ハワイ, 日本, ハバロフスク, オランダ, モロッコ」 등으로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지명은 수도인 「도쿄(東京)」이다.

한일 양국 유행가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국내외 지명으로는 「チャイナタウン(차이나타운), 木浦(목포)」가 있다. 특히, 「木浦(목포)」는 일제강점 당시 일제의 군수물자, 식량과 노동력의 유출이 빈번하던 대표적인 공간적 지표로 양국 모두 인식하고 있음을 본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전후복구와 광복이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양국의 수도 「도쿄(東京), 서울」에 산업과 인구의 집중화 현상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일 유행가의 국명·지명을 나타내는 어휘는 당시 두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변동에 따른 당시의 시대상을 비춰주는 거울역할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로서의 생성, 소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본 고찰을 토대로 1960년대 이후의 한일 유행가에 나타난 국명·지명의 비교고찰을 통해 각 시대의 변화양상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싶다.

## 【참고문헌】

- 김광해(1999)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연구』 박이정.  
 김만수(1996) 「일제시대 대중가요의 역사적 의미」, 『유성기로 듣던 不滅의 名歌手』, 신나라레코드  
 김희정(2001) 「韓日兩國 流行歌語彙의 對照研究 -1945년부터 1960년까지-」 『日本語學研究』 第3輯 韓國日本語學會  
 \_\_\_\_\_(2002) 「日帝強占期 以後의 韓日 兩國 流行歌 語彙의 對照研究」 『日本語學研究』 第6輯 韓國日本語學會  
 박찬호, 최동현, 김만수(1997) 『불멸의 명가수』, 신나라레코드  
 쓰루미 순수케·이문환(2001) 『전후 일본의 대중문화』 한림신서 일본학총서10 小花출판사  
 윤인진(2005)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尹永川(1987) 『日帝 強占期 韓國 流移民 詩의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이영미(1993) 『대중가요사』, 시공사  
 이영미(2002) 『홍남부동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황금가지  
 이정희(2002) 「현대 일본문학과 식민지체험 I : <만주체험>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 13호, 한국일본문화학회, p.2  
 今尾恵介(2008) 『地名の社會學』 角川選書424

岡野弁(1988) 『演歌原流・考』 學芸書林  
 倉田喜弘(2000) 『「はやり歌」の考古學-開國から戦後復興まで』 文藝新書 171 文藝春秋  
 小澤昭一的(2000) 『流行歌・昭和のころ』 新潮文庫  
 柴田勝章(1996) 『歌のなかの東京』 中央アート出版社  
 阿久 悠(2004) 『歌謡曲の時代 -歌もよう人もよう-』, 新潮社  
 姜 信者(1998) 『日韓音楽ノート -<越境>する旅人の歌を追って-』, 岩波新書  
 菊池清麿(2008) 『日本流行歌變遷史-歌謡曲の誕生からJ・ポップの時代へ』, 論創社  
 倉田喜弘(2001) 『「はやり歌」の考古學 -開國から前後復興まで-』, 文藝春秋  
 小沢昭一的(2000) 『流行歌・昭和のころ』, 新潮文庫  
 柴田勝章(1996) 『歌のなかの東京』, 中央アート出版社  
 田家秀樹(1999) 『読むJ・POP ー1945-1999 私的全史 あの時を忘れないー』, 徳間書店  
 舌津智之(2002) 『どうにもとまらない ー七十年代のジェンダー ー』, 晶文社  
 中野洋(1977) 「流行歌五十年, ことばの移り変り」 『言語生活』315 筑摩書房  
 \_\_\_\_\_(1982) 「流行歌の語彙」 『講座日本語の語彙』 明治書院  
 横矢島古外3(1994) 『新版 日本流行歌史 上』 社会思想社  
 \_\_\_\_\_外3(1994) 『新版 日本流行歌史 中』 社会思想社  
 速水健郎(2007) 『タイアップの歌謡史』, 洋泉社  
 堀 雅昭(2001) 『戦争歌が映す近代』, 葦書房  
 矢沢 寛(1994) 『流行歌氣まぐれ50年史』, 大月書店  
 山住正己(2004) 『子どもの歌を語る -唱歌と童謡』, 岩波新書

<필자인적사항>

김희정

근무처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직 위: 연구교수

주 소 :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65 일본연구센터 302호

전화번호 : 02)3290-2592

핸드폰 : 010-3303-0225

---

논문투고일 : 2010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0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0년 04월 10일  
 2차 수정일 : 2010년 04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04월 25일

---